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것이다."(렘31장33절)

| 노회 중심 총회 운영, 9월 총회까지 매주 모여 회개기도와 헌법등 준비할 것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제50회 임시총회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제49회기 총회장
전광훈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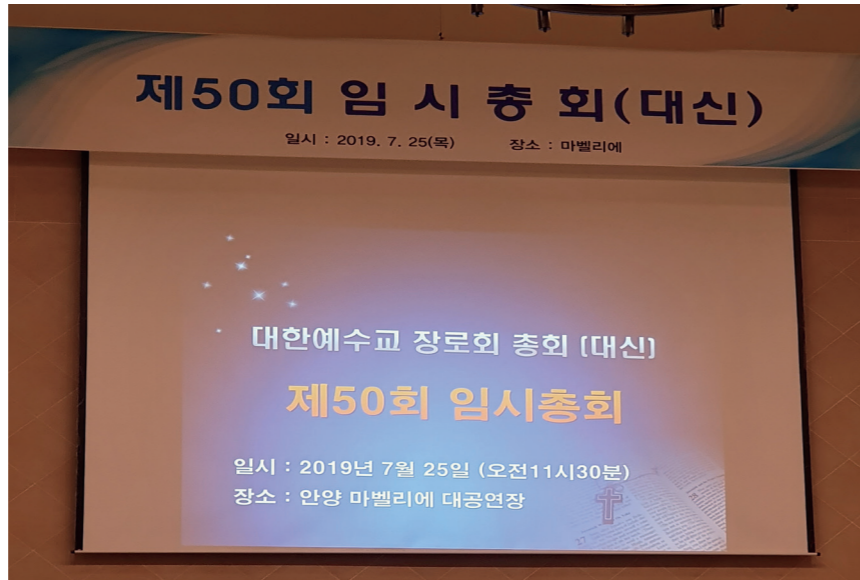
2015년, 15년 이상 선배 총회장들이 진행되었던 백석총회와 대신총회 통합을 제49회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에 의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흐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 하지 않는 열매로 제50회 대신총회 복원총회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 하지 않는 열매로 제50회 대신총회 복원총회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마벨리에 뷔페에서 '제5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신총회 복원을 선포하고 오는 가을 제50회 총회를 속회하기로 하여 마무리 되었다.

먼저 1부 예배는 최종환목사(송천장로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기도, 강령철목사(참된교회 담임),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장1~6절, 제49회기 대신총회장 전광훈목사는 본문을 가지고 계시록의 7개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지만 유독 사데교회는 책망만 있다고 전하면서 마치 한국교회와 목사들이 사데교회 형편처럼 있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다고 하면서 자신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 2019년 7월 25일 오전 11시30분 안양마벨리에 대공연장에서 제50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사진=교회협동신문)

를 간구하자고 전했다. 축도, 조석행목사(선민교회 담임) 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회무처리에 앞서 최종환목사의 광고순서가 진행되었다. 광고 내용은 "총회는 교단을 세우신 고봉 김치선 목사의 설립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장로교정치를 실현하여 노회 중심의 교단과 총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교단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을 약속합니다. 또한 2부 회무처리는 2015년 9월 14일 통합결의 무효소송으로 인한 사유를 위한 순서만 처리하고 추후 총회 일자를 공고 후 정식으로 임원을 조직하겠습니다. 대신 총회 행정업무를 할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시에 준비하여 8월 15일 이전에 사무국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운영을 위한 인원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전했다.

"대신의 정통성과 이날 제50회 임시총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
2부 회무처리는 먼저 전광훈 목사가 대

신의 정통성과 이날 제50회 임시총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전 목사는 통합을 결의한 제50회 총회를 무효로 판결한 재판에서 법원은 대신이 50회 총회로 다시 돌아갈 것과 대표자는 전광훈 목사 자신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총회의 정통성은 오직 자신들에게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목사는 "유00 목사에게 대신의 이름과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00 목사가 그냥 돌려주면 역사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 행정소송을 해서 가져가라고 했다.



▲ 임시총회 참가자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진=교회협동신문)

그 대신 변론을 안하겠다고 하더라"면서 "그래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전목사는 서류를 돌려달라는 재판이기에 저도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9월 총회까지 매주 모일 것"

임시총회는 개최 당시 약 72명이 등록했다고 최종환목사가 회원점명하였다. 의장인 전광훈목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 목사는 "오늘 제50회 복원총회를 개최한다. 우리 복원총회는 한국교회의 280개 교단에 하나 플러스 되는게 아니다. 김치선 목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면서, 차근차근 9월 총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면서 "그 출발점에 여러분이 있다.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회개하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통제해 주실 것을 기도하자"고 말했다.

앞으로 총회 운영에 대해서는 장로교정치 기본인 노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모든 정치는 노회로 이관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강도사 고시만 총회에서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 구성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전 목사는 김치선 박사의 교단 설립 정신이 바탕한 최첨단 교단을 약속했다.

대신총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역대총회장 | 위기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

회기	재임기간	성명
50		
통합총회4	2018. 09 ~ 2019. 09	이주훈/안태준
통합총회3	2017. 09 ~ 2018. 09	유충국/김동성
통합총회2	2016. 09 ~ 2017. 09	이종승/양치호
통합총회1	2015. 09 ~ 2016. 09	장중현/박종근
49	2014. 09 ~ 2015. 09	전광훈
48	2013. 09 ~ 2014. 09	최순영
47	2012. 09 ~ 2013. 09	황수원
46	2011. 09 ~ 2012. 09	강경원
45	2010. 05 ~ 2011. 09	박재열
43 ~ 44	2008. 09 ~ 2010. 04	김명규
42	2007. 09 ~ 2008. 09	고창곤
41	2006. 09 ~ 2007. 09	구문희
40	2005. 09 ~ 2006. 09	최복수
39	2004. 09 ~ 2005. 09	유덕식
38	2003. 09 ~ 2004. 09	김상록
37	2002. 09 ~ 2003. 09	김요셉
36	2001. 09 ~ 2002. 09	이무웅
35	2000. 09 ~ 2001. 09	김춘국
34	1999. 09 ~ 2000. 09	김재규
33	1998. 09 ~ 1999. 09	이경운
32	1997. 09 ~ 1998. 09	김백수
31	1996. 09 ~ 1997. 09	이경성
30	1995. 09 ~ 1996. 09	황만재
29	1994. 09 ~ 1995. 09	구주희
28	1993. 09 ~ 1994. 09	김연신 /우원근
27	1992. 09 ~ 1993. 09	문영기
25~26	1990. 09 ~ 1992. 09	최복규
23~24	1988. 09 ~ 1990. 09	양용주
21~22	1986. 09 ~ 1988. 09	문영기
20	1985. 09 ~ 1986. 09	최현
19	1984. 09 ~ 1985. 09	박기수
16~18	1981. 09 ~ 1984. 09	김세창
15	1980. 09 ~ 1981. 09	이장우
14	1979. 09 ~ 1980. 09	김준삼
13	1978. 09 ~ 1979. 09	이의완
12	1977. 09 ~ 1978. 09	신현기
10~11	1975. 09 ~ 1977. 09	이의완
9	1974. 08 ~ 1975. 09	김상목
7~8	1972. 04 ~ 1974. 08	최순직
5~6	1970. 05 ~ 1972. 04	김완섭
3~4	1968. 03 ~ 1970. 05	황영도
1~2	1961. 06 ~ 1968. 03	김치선

Contents

2-5 교단소식 6 신학산책 7 신앙과 삶 8 전면광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제49회기 총회장 전광훈목사 담화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대신)
제49회기 총회장
전광훈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기 총회를 시작하면서 회개운동부터 시작입니다.

대신총회는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세상의 역사, 사건, 국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던져지려는 절대절명의 위기는 바로 한국교회와 목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로 시작된 노아의 심판처럼 또한 적어도 성당은 매때까지 않았던 중세신부들 보다 더 타락하여 지금 이 시대를 불러 온 결정적 원인을 교회와 목사들이 제공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기 총회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99) 확정판결과 및 총회장 지위 확인의 소(사건번호 2018가합104165) 1심 판결에 의거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대신총회 제49회기 총회장으로 2000여 지교회 및 목사, 장로, 성도님, 대신인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며 저가 잘못했습니다. 또한 교단 설립자이신 김치선목사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0회기 총회를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당당히 맞서던 교단설립자 김치선목사를 대신이 살려 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280여개 총회 가운데 또 하나의 총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교회처럼 대신총회가 복원되지 않으면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에 내 던져 질 것입니다. 김치선목사의 신학이 곧 애국인 것처럼 대신교단의 복원과 사명은 대한민국의 생과 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주일 한번씩 모여 회개운동과 칭찬을 듣는 빌라델피아교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 등을 준비하여 오는 가을 총회에 속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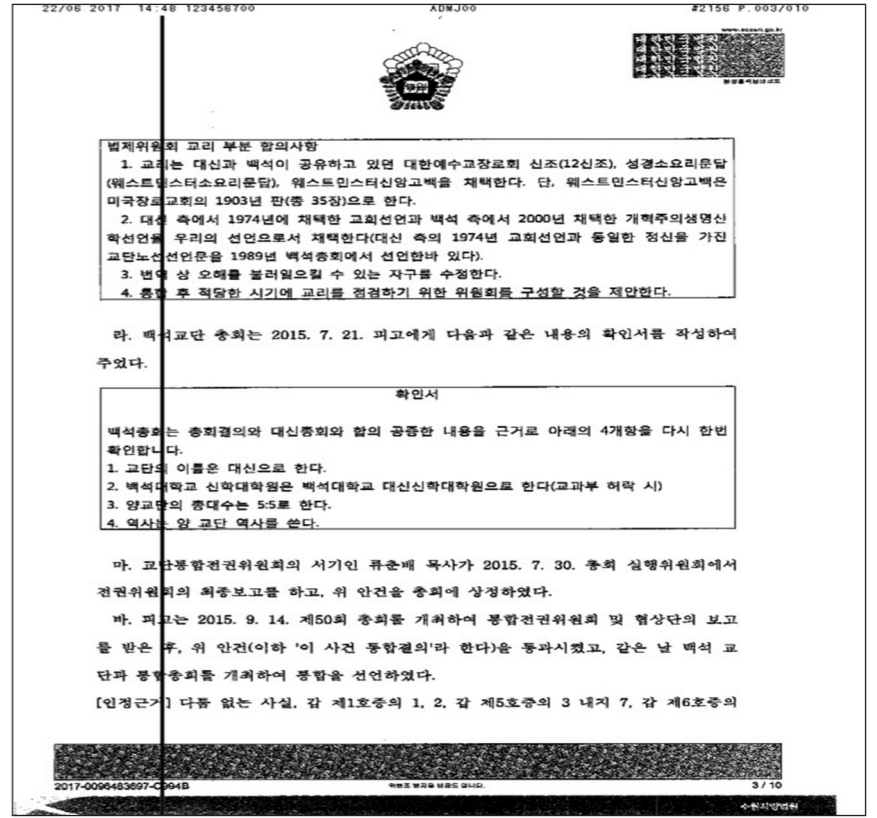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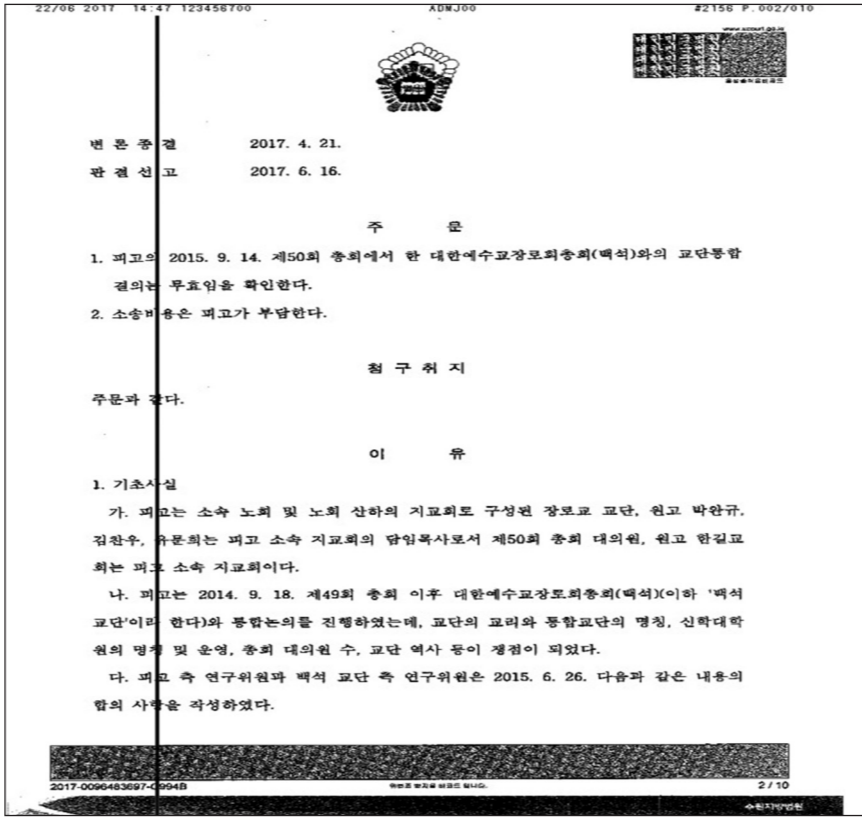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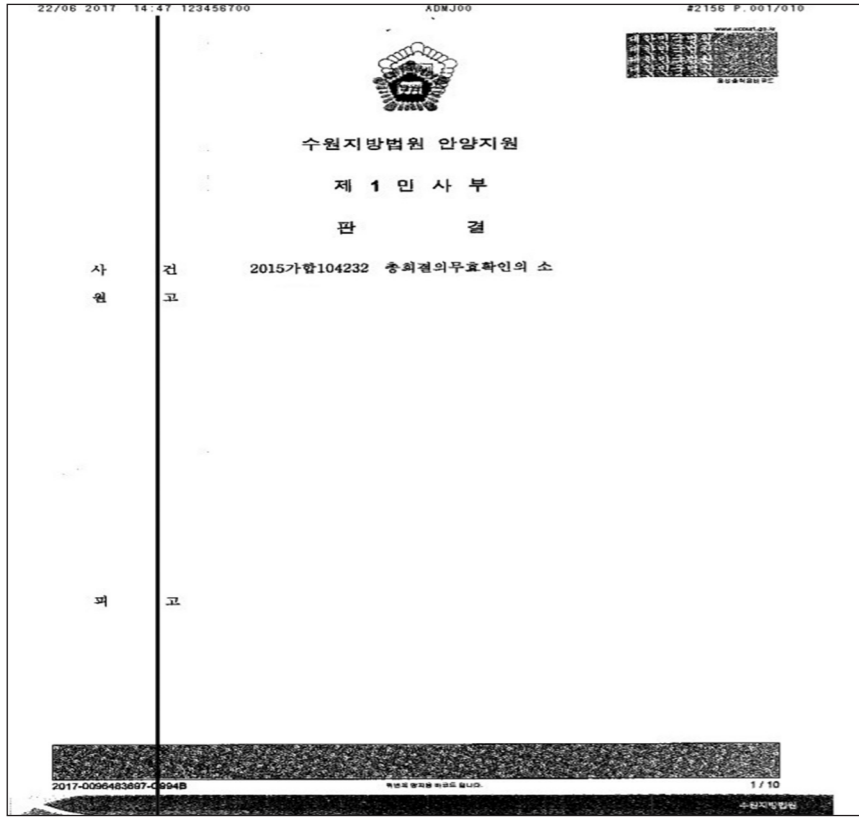
대한민국 1,200만 성도의 희망이 되는 총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출발에 회개와 저가 잘못했으며 하나님 다시 한 번 살려주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대신) 50회기 복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전광훈목사 올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 2015가합 104232 총회결의무효확인소 |

|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역사의 교훈이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신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속 노회 및 노회 산하의 지교회로 구성된 장로교 교단, 원고 박 00, 김00, 유00는 피고 소속 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제50회 총회 대의원, 원고 한길교회는 피고 소속 지교회이다. 나. 피고는 2014.9.18. 제49회 총회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이하 '백석교단'이라 한다)와 통합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교단의 교리와 통합교단의 명칭, 신학대학원의 명칭 및 운영, 총회 대의원 수, 교단 역사 등이 쟁점이 되었다.

다. 피고 측 연구위원과 백석 교단 측 연구위원은 2015.6.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작성하였다.

법제위원회 교리 부분 합의사항
1. 교리는 대신과 백석이 공유하고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12신조), 성경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채택한다. 단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미국장로교회의 1903년 판(총35장)으로 한다.

2. 대신 측에서 1974년에 채택한 교회 선언과 백석 측에서 2000년 채택한 개혁주의생명신학선언을 우리의 선언으로서 채택한다(대신 측의 교회선언과 동일한 정신을 가진 교단노선언문을 1989년 백석총회에서 선언한바 있다.)

3. 변역 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구를 수정한다.
4. 통합 후 적당한 시기에 교리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라. 백석교단 총회는 2015.7.2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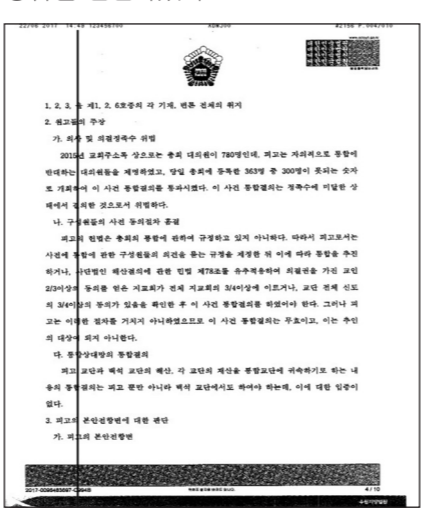
확인서
백석총회는 총회결의와 대신총회와 합의의 공정한 내용을 근거로 아래의 4개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 교단의 이름은 대신으로 한다.
2.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백석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으로 한다(교과부 허락시)
3. 양교단의 총대수는 5:5로 한다.

4. 역사는 양 교단 역사를 쓴다.

마. 교단통합전권위원회의 시기인 류준배 목사가 2015.7.30. 총회 집행위원회에서 전권위원회의 최종보고를 하고 위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14. 제50회 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전권위원회의 협상단의 보고를 받은 후, 위 안건(이하 '이 사건 통합결의'라한다)을 통과 시켰고 같은 날 백석 교단과 통합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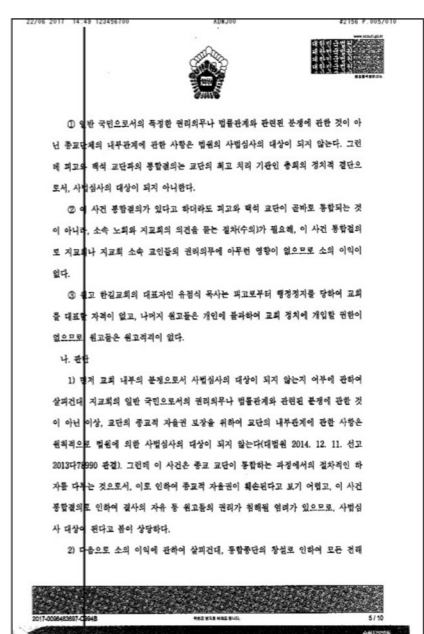
2. 원고들의 주장

가.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반
2015년 교회주소록 상으로는 총회 대의원의 780명인데, 피고는 자의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을 제명하였고, 당일 총회에 등록된 363명 중 300명이 못되는 숫자로 개최하여 이 사건 통합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사건 통합결의는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결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절차 흠결
피고의 헌법은 총회의 통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전에 통합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규정을 제정할 뒤 이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거나, 사단법인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교회 전체 지교회의 3/4이사에 이르거나 교단 전체 신도의 3/4이상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통합결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

므로 이 사건 통합 결의는 무효이고 이는 추인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통합상대방의 통합결의
피고 교단과 백석 교단의 해산, 각 교단의 재산을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합결의는 피고 뿐만 아니라 백석 교단에서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 ①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 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와 백석 교단과의 통합결의는 교단의 최고 처리기관인 총회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이 사건 통합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백석 교단이 곧바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 노회와 지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수)가 필요해, 이 사건 통합결의로 지교회나 지교회 소속 교인들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 ③ 원고 한길교회의 대표자인 유정식 목사는 피고로부터 행정정지를 당하여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개인에 불과하여 교회 정치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권위적격이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은 종교 교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하자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종교적 자율권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통합결의로 인하여 결사의 자유 등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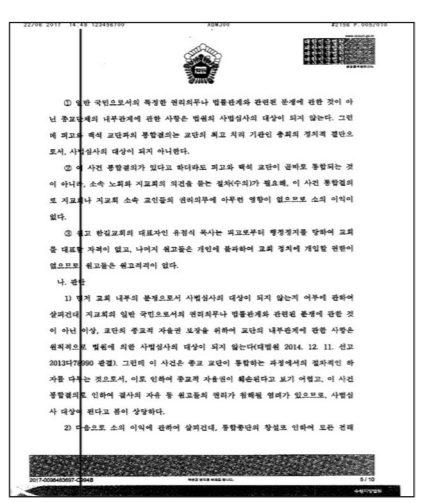
| 원고들이 이 사건 통합결의에 반대하여 통합된 총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한다면 피고의 재산에 관한 이용권 등 권리가 제한 될 수 있고, 대신총회라는 명칭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통합결의의 효력을 다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한길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통합결의 당시의 총회 대의원으로서 총회 결의의 위법사유를 다룰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 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판결)

| 먼저 제50회 총회 당시의 대의원의 수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총회 대의원 780명에서, 49회기 상회비 마감기한까지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노회의 대의원 72명과 가칭 대신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한 정치부 제의 및 임원회 행정결정 통보로 인한 총

대정치 31명을 빼고 총대의원(장로)보고 누리로 추가 요청된 10명을 더하면 총회 대의원이 687명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의하면 2015년 총회 대의원 수는 780명인 사실, 그런데 49회기 상회비 마감기한인 2015.7.30. 까지 중부노회, 호남노회, 한북노회, 서울중앙노회, 동간원노회가 상회비를 완납하지 못하여 소속 목사 44명 장로 28명의 대의원 자격이 제한되었다가 그 중 한북노회(대의원 26명), 호남노회(대의원 7명), 동간원노회(대의원 16명)는 총대점점 당시 임금이 완료되었고, 총대원들이 허락으로 총대자격을 얻게 된 사실(회의록 4쪽)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나머지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총대점점 시 자격을 얻은 위 노의 대의원 수 49명이 가산되면 대의원 수는 687명이 아니라 736명이 된다.

| 다음으로 총회 당시 출석 인원수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는 총회 당일 총 490명이 등록하였고 대의원 등록을 마친후 출석으로 간주되므로, 40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헌법 5 정치 제12장 제95조는 '총회의 개최성

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제32총회에서 '회원점점을 회원점점으로 할 것 : 통상 회의법에는 회원수가 30-50명을 넘으면 회원점점으로 할 것(본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서기부에서 좌석에 참석여부를 지정 점점함으로써 확인)'이라고 의결한 사실, 총회 회의록에는 '회원점점 당시 687명 중 363명이 등록을 하였고 회의장 내에 들어온 사람의 수는 300명에 못 미치는 숫자' (회의록 3쪽)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제32회 총회의 결의 취지는 대의원 등록만으로 출석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부의 좌석착석 여부 확인이 있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서기부의 보고에 의하면 300명이 못되는 숫자가 출석하였고 정확한 출석인원은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의 계좌로 2015.9.16. 12,270,000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기재만으로 409명이 출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회의록 기재 상으로도 회의장 내 사람의 수는 300명에 미치지 못하고 363명의 등록은 모두 출석으로 보더라도 대의원 736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총회의 개최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최요

건 결여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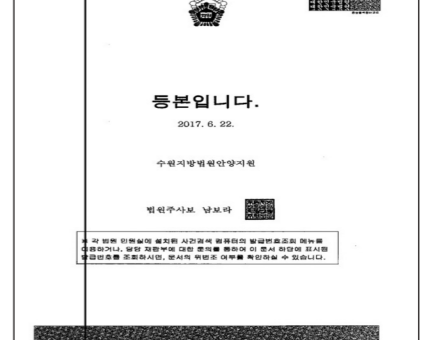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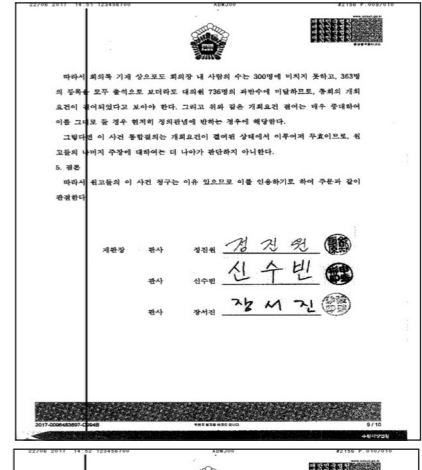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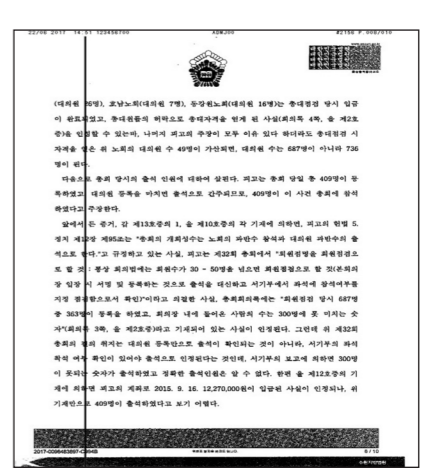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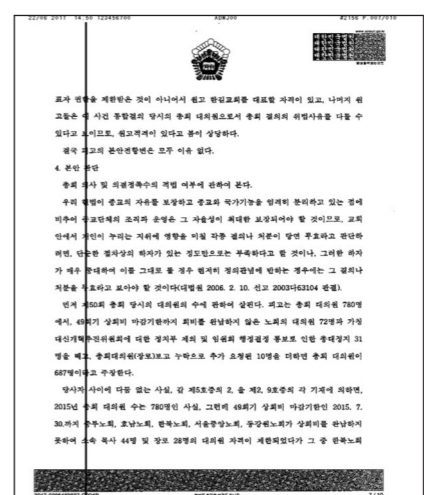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사건 통합결의는 개최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의 2015.9.14. 제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018가합104165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 |

사건 2018가합104165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원고 전광훈
서울 성북구 장위로40가길 19(장위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권우현, 이순호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74, 3층 (안양동, 특수초빌딩)
송달장소 구리시 갈매중앙로 56(갈매동, 제자교회)
대표자 유충국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3.4.

주 문

1. 원고가 피고의 총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총회장 지위확인 항소심 진행중

쟁점

- 원고에게 제명사유들이 존재하고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표할 수 없는 유00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
- 현재 피고를 위한 총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원들이 정해져 있어 원고가 총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판결

- 원고 교단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총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마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확정 발표

오는 19~20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개최



▲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 분개 예방을 위해 최초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완성해 발표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재 교수)가 정관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완성하고 지난 9일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 대뉴얼'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직까지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한국교회법학회는 목사와 장로, 법학 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표준정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모범정관을 참조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그동안 교단과 교회, 원로, 언론 등 각계 자문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 내용을 확정했다. 또 표준정관 대뉴얼에는 지난 50년간 국가법원이 이 교회 사건에 대해 내린 약 200여건

판결을 교회법 체계 맞춰 정리했다는 점에서 교회가 활용하기에 유익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제도와 규정 미비로 교회 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한편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표준정관대뉴얼'을 발간해 극찬을 받은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재 교수)가 오는 19~20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를 개최한다.

19일 오후1시부터 20일 오후4시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심화세미나는 한국교회 내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학회장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표준정관대뉴얼'에 대해 기독교 언론은 물론 일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7월9일 설명회에는 2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의와 자문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두 시간의 피상적인 설명회로는 표준정관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턱없이 미흡하기에 이틀간의 심화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심화세미나에서는 표준정관의 각 장을 8개 분야로 나누어 표준정관 편집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헌재 교수는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란?'을 주제로 표준정관의 의미와 내용 및 제정과정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한다.

음선필 교수는 '제1장 총칙'에 대해 교회의 주권과 자유 및 교회정관과 총회헌법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명재진 교수는 '제2장 교인'에 대해 교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및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정재근 박사는 '제3장 교회의 직원(사역자)'에 대해 목사의 자격과 취득 상실 및 목사의 청빙과 사임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고, 서헌재 교수는 '제4장 교회의 기관(치리회)'에 대해 당회의 구성과 직무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송기형 변호사는 '제6장 교회의 재산'에 대해, 이석규 박사가 '제정회계(종교인과세)'에 대해, 서헌재 교수가 '부칙 및 교회의 노무'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한편 이번 심화세미나에서는 표준정관 강의 이외에도 신장환 목사가 '목회와 스마트폰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 참가비는 3만원이며, 교재비와 식대가 포함된다.(문의 1600-9830)

김한수기자



▲ 19일 오후1시부터 20일 오후4시까지 심화세미나를 개최

제21회 MK리더십 캠프

37개국에 거주하는 선교사 자녀가 함께 하는 MK축제



▲ 지난 7월9일 새중앙교회 대부도수양관에서 개최예배를 드렸다.

1999년부터 21년 동안 매년 7월에 개최하는 MK리더십캠프가 금년에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170여개국에 파송한 선교사 자녀들을 여름방학마다 초청하여 MK 리더십 캠프를 주관하는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원장 김백석 박사)이 지난 7/9(화)~18(목)까지 열흘 동안 진행한 내용들을 살펴본다.

개회예배

7월9일 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목사)에서 참가자 초종교 학생 172명과 스태프 70명 그들의 부모 선교사와 다수의 관계자들이 모여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열흘간의 캠프가 시작되었다. 개회예배 후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되었다. 요한복음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주

제 말씀을 중심으로 그동안 부모에게 들어만 왔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과 말씀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독립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내용들로 진행된다.

MK들의 어려움은 상당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첫째 주간은 MK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복인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정체성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갖는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큐티파티" 강의를 통해 말씀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한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미디어 중독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의 위험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성교육과 집단 및 개인

상담을 통해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한다. 학년별 소그룹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고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귀기울여준다.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평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캠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사랑 가득한 홈스테이

1주차를 마치면 유초등부는 폐회예배로 마무리하고 중고등부는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다. 3년째 장항성일교회(담임 황형식 목사) 교인들이 자녀 또래의 MK들을 2박3일간 입양해서 사랑으로 섬긴다. 주변 맛 집과 관광지 투어는 기본이고 미장원 노래방등 선교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문화를 즐기도록 따뜻하게 배려해주며 대화의 폭을 넓혀간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대다수의 MK들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공감해 주고, 맛 집과 맛 집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의 기분을 풀어주니 아이들 마음엔 행복이 넘치고, 이롭고 낯선 선교지의 삶을 직접 들으며 도전과 비전을 함께 갖게 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2주차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정이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대

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가족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질문이 쌓여갈 무렵 역사의 현장과 발전된 조국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탐방하는 가운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져간다.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피며 다짐하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증진해진다.

그동안 자신만 힘들게 사는 줄 알던 MK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수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2주간동안 공동학습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 선교지로 돌아간다.

MK사역 현황

한국교회와 선교기관이 170개국에 파송한 28,000명의 선교사와 18,810명의 MK들이 있지만 MK전문 사역기관은 3곳에 지나지 않는다. 선교의 다양한 영역중 MK사역은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에 분을 넘칠 만큼 힘써 왔고 그 결과 세계 선교 역사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녀문제로 얼마나 마음졸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제

때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여 눈물 흘리며 애대우는데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선교지에서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언어와 문화로 준비된 MK들은 한국교회의 자산이고 국가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지금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MK 사역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많은 NGO 단체들이 지구촌 곳곳에 거주하는 약자들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광고 전략가들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제작한 모드를 위한 홍보영상은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자극적인 내용까지 넣었기에 홍보영상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종교와 관계없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참여자들이 늘어난다. 기업에서 이들을 지원했을 경우 다양

한 세계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기에 기업들도 거액의 후원금을 보낸다. 그러나 MK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살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특정 종교 영역이다. 이제라도 파송한 교회와 교단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앞장서 다음 세대의 선교자이원 MK들을 세워가기 위해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동역해야 한다.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 원장 김백석 박사는 지금 MK들을 빠르게 교육, 돌봄, 지원한다며 1. 선교사들은 복음전파에 전력투구 할 수 있고 2. 최상의 선교자원 확보로 선교부흥을 기대 할 수 있으며 3. 균형 잡힌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세워 세계 선교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MK사역은 선교중의 선교이고 선교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MK는 다가오는 통일한국 복음화와 세계선교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komked.org 우인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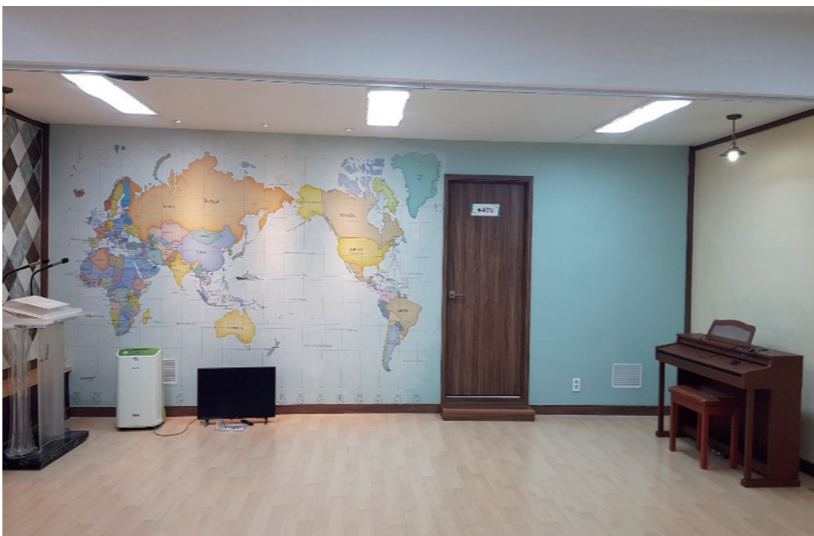
대신교회협동신문

대표 최종환
발행인/편집인 강영철 인쇄인 이병동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영철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전화 032-664-0153-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신복원총회 행정업무 본격 가동

대신총회는 44개노회, 선교사 권역-12 국가-58 가정-210 선교사-521명이 복원되었으므로 백석교단과는 관계가 없다.



▲완전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번지(전화 032-664-0153~4)에서 본격적인 사무국 업무를 시작했다. 대신복원총회 행정사무국 관계자는 "대신복원총회는 완전 정상화 될 때까지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번지(전화 032-664-0153~4)에서 본격적인 사무국 업무를 시작했으며 사무국 업무를 통하여 총회장 지위 확인의 항소를 담당하고 또한 대신복원총회 행정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대신복원총회는 대신총회 제49회회를 기준으로 44개노회, 선교사 권역-12, 국가-58, 가정-210, 선교사 521명, 그 밖에 총회 기관 등이 복원되었으며 정상화를 위하여 교단총회신학교 및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 점차 복원해 나갈 방침이며 마지막으로 대신복원총회와 의견을 달리하시는 지교회 및 목회자는 개별적으로 탈퇴공고를 내면 된다." 고 밝혔다.

조용한 하늘 위로로 응원합니다

[신간소개]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외 3권 교회오빠 이관희, 영화에 이어 책 발행 눈길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대식/생명의 말씀사

진정한 격려는 그저 덕담이나 어깨를 토닥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없다. 순간의 안도감과 반짝하는 힘은 전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지 고민하며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무엇이 성숙인가

조정민/두란노

기독교인들이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이 이토록 소란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별다른 도전을 주지 못한다. 저자는 듣고 배운 말이 손과 발의 삶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설명한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예수가 진리임을 깨닫고 목사가 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찾고 생명의 길, 진정한 성숙의 길을 견도록 돕는다.

교회오빠 이관희

오은주·이호경/국민일보

감독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오빠'가 책으로 출간됐다. '교회오빠'를 연출한 이호경 감독과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영화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심 가득한 글로 담아냈다. 고난이 닥치기 전 그저 평범한 청춘이었던 부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비기독교인인 이호경 PD의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와 책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스토리가 펼쳐진다. 한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은 '진심과 진정성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미는 알고나 사용합시다-기독교 언어와 신앙생활

최성수/영

이 책은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와 그것의 잘못된 사용에 집중해서 저술했기에 성도가 읽으면 가장 유익하다. 이런 점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된다. 신학적인 사유를 훈련하는 신학생들은 기독교의 기본 언어의 의미와 그것의 사용에 대해 숙고함으로써 새로운 신학함의 출발점을 얻을 수 있다. 직분자 교육이나 특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이 함께 읽거나 교육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강영철기자

영화 '교회오빠' 책 출판 및 미국개봉 확정, 국내 관객 10만 돌파

| 기독교 다큐 영화 중 '회복'의 15만7793명,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12만3206명을 잇는 역대 3위의 관객수로 의미를 더한다.

| 성도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자이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기초이다.



▲ 영화 교회오빠 부부의 아름답고 가슴떨만한 리얼스토리

꾸준한 장기 상영을 이어가며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가 의미있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7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교회오빠'(감독 이호경·제작 KBS)가 누적 관객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 16일 개봉 이후 두 달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또한 국내 기독교 다큐 영화 중 '회복'의 15만7793명,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12만3206명을 잇는 역대 3위의 관객수로 의미를 더한다.

'교회오빠'의 10만 관객 돌파는 죽음 앞에서도 순교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 이관희 집사의 진정성 그리고 그의 삶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관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교회오빠'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9일 미국 서부 CGV LA와 7월 11일 CGV 부에나 파크(Buena Park)에서 각 지역의 목회자를 초청한 시사회를 끝마쳤고, 7월 14일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상영회를 진행했다. 7월 21일 맨하튼 뉴프런티어교회에서 또 한 차례의 상영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7월 25일에는 CGV 부에나 파크(Buena Park)에서 정식으로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정식 개봉을 앞둔 가운데 영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책 '교회오빠 이관희'는 7월 22일 출간될 예정이다. 이는 '교회오빠'를 연출한 이호경 감독과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영화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심 가득한 글로 담아낸 책이다.

교회오빠의 즐거리는 "하나님, 저희 가정 이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4기 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알게 된 아내의 4기 혈액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도 매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마치 '염'과도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도 남편 이관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갔던 이관희 집사의 순전한 믿음이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진다.

교회오빠 리뷰 가운데 기자의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주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는가? "종교는 힘든자에게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만들기도 한다. 주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애초에 암에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믿었는데도 부부가 모두 암에 걸린다고? 자신을 섬기는 자식들을 구원해주지도 않는데 무슨 신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의사에게 치료받아서 완치되어도 하나님덕분이라고 간증을 한다. 암환자를 고치는건 의사지, 하나님이 아니다. 필자는 무교이지만, 가족중 암환자가 있어서 공감하게되었다."

택자, 믿는 자에게는 징벌의 원인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죄와 사탄,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 믿음, 인내, 기도와 순종 등이 강화되고, 확정되기 위한 것이다.

또는 고난을 통하여 덕성들이 우리에게 있음이 증명된다. 모든 것이 잘될 때는 이런 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진실한 덕성은 고난 속에서 발견된다.

성도의 자신의 잘못과 실족 때문입니다. 성도가 잘못을 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교회와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성도를 구해내심으로 하나님이 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이신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고난과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성도는 자신이 가진 진리가 참임을 드러낸다.

성도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증명하며 경건한 자들이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올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증거이다. 경건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면 약한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보상하는 영원한 생명과 약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강영철기자



P46과 김영규 박사 기독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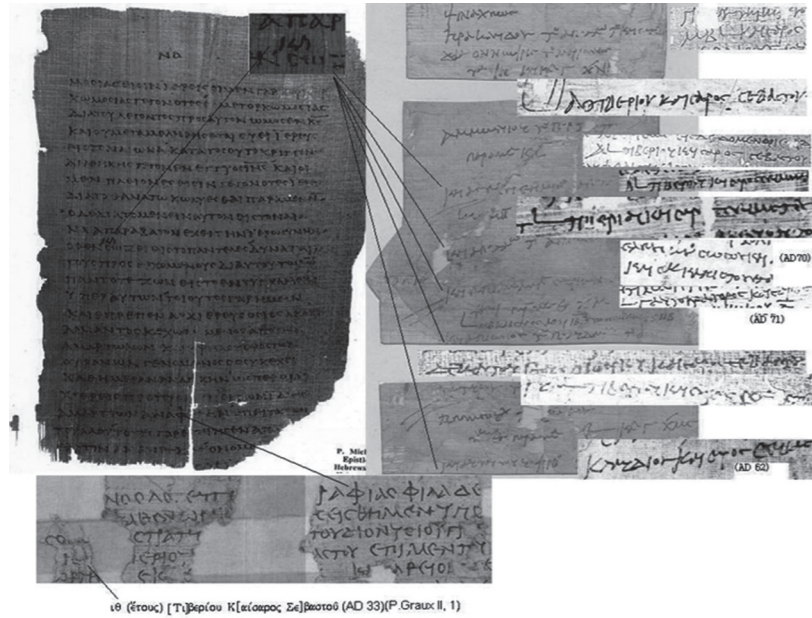
신현우 박사는 "사본학,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에세이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제시했다.

또저도 그의 사본학 입문서 3판 부록에 김영규 교수의 논문을 다루고 있다(영문판, 265-56 참조). 김영규 교수의 논문은 로마에서 발견되는 세계 정상급

기를 그치고 반세기 이상 앞당겨 주후 2세기 초중반 정도로 절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한국에는 신약 사본학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사람을 알아 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인들은 TV 동양학 강의로 일약 유명해진 김용욱만 좋아하지 말고 서양학으로 서양학자들의 숨을 죽인 자랑스러운 한국학자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신현우 교수의 "사본학, 왜 필요한 것인가?"에서



▲김진욱 교수가 <출처: http://quod.lib.umich.edu>에서 소개한 P46의 41번째 장의 뒷부분(P. Mich. inv. 6238, 2) [출처] P46과 김영규 박사작성자 고경태



▲김영규 박사가 기독교개혁신보에 게재한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과 파피루스 46번'의 그림에서 가져왔음. P46이 AD 70년대 이전에만 발견되는 초서체 남아 있음으로 파피루스 연대를 수정했다.[출처] P46과 김영규 박사작성자 고경태

"이렇게 중요한 현대 신약 파피루스학 연구의 한 장을 한국 학자가 장식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학자 Sturz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한국학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 파피루스(P) 46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일약 세계 사본학계를 발칵 뒤집은 한국인이 바로 김영규 교수이다. 20세기 최고의 사본학자 메

서서학 저널인 <비블리카(Biblica)> 69호에 1988년도에 실렸다. 그의 주장은 P46을 주후 200 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믿는 국제학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김 교수에 의하면, P46은 필체상 1세기 파피루스 필체로 쓰여졌으며, 따라서 주후 1세기(주후 80년경)에 필사된 것이다. 물론 자존심이 센 서양의 신약사본학계가 동양에서 온 한 유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주후 200년경을 고집하

사본학에서 이러한 색선이 있는 것은 사본학에서 나사렛보다 더 나사렛인 대한민국의 한 학자가 사본학계를 강타시켰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김영규 박사이다. 김영규 박사는 1988년 독일 유학 시절에 "파피루스(P) 46"에 관한 논문을 <비블리카(Biblica)> 69호에 발표했다. 그 논문은 히브리어 사본 P46이 주후 200년경에 필사된 것이라는 당대 정설로 굳혀진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고, 주후 80년경 필사본임을 밝힌 것이다. 김 박사의 견해는 아직도 독일이나 세계에서 반박하거나 바꾸지 못한 정설이다.

그리고 김영규 박사의 연구를 김진욱 교수는 "깨어지는 파피루스의 위엄"이라는 에세이를 기독교개혁신보에 게재했다(http://repress.kr/2702/). 김진욱 교수는 P46이 로마서와 연결되었

기 때문에 정경 목적이 로마서-히브리어-고린도전서-고린도후서가 되어, 히브리어 바울 저작성에 대해서 주장했다. 김 박사는 "히브리어의 바울저작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김영규 박사는 성경이 계시 문서이며 유일한 구원의 방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 주장하는 학자이다. 사본학이라는 가장 원천 지식을 다루는 학자들의 실수를 폭로해서 사본학을 근거해서도 성경비평학이 아닌 계시 문서로서 사본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립했다. 성경비평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P46의 초서체"라는 개념은 너무나 생소하다. 김 박사는 P46의 파이(Phi) 문

자의 필체(모형)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혀, 년대를 수정한 것이다. 김 박사의 주장은 독일 및 세계 사본학의 정설을 바꾼 것이다. 1988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계에서 너무나 침묵하고 있다. 신현우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만(?) 유명한 도올 김용욱만 보지 말고, 세계 학문을 결정하고 전환시킨 우리의 연구자도 알아봐주라고 할 정도이다.

김 박사는 기존의 p46을 근거로 확립한 학문을 수정 및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오류 근거로 확립한 성경비평학이 많고, 그것을 답습하는 학도들이 많은 것은 개탄스러운 것이다. 주후 1세기 후반의 가장 오래된 바울

서신들의 책 파피루스(P46 = P. Beatty II + P. Mich. 222)는 첨가된 초서체의 필체나 내적인 언어 상 증거 등이 그 연대에 있어서 결정적이어서 오히려 날짜가 없는 다른 모든 문헌 파 피루스들의 필체 감정에 있어서 기준이 될 정도로 명확한 시대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영향을 끼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객관적인 성경들 이외에 다른 곳에서 기독교의 기원과 그 교 리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너무 객관성이 없다. 19세기 후기에서부터 그런 파피루스들이 발견된 이래 계몽시대 이후 교회 안 에 있어 왔던 기독교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작업들과 책들은 거의 폐기처분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적의적 태도를 가진 것 자체가 무지한 자들의 다수를 내세워 거짓을 참으로 바꾸어 비난하는 폭력적 태도가 가깝다. <김영규, "세속의 도전과 성경의 권위"에서>

김영규 박사는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 진흥협회(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등으로 물리학계에서도 탁월한 학문 능력을 갖고 있다. [출처] P46과 김영규 박사작성자 고경태

특강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강해



강영철목사 참된교회 담임



1문의 독특성은 경정을 넘어 밀려오는 죽음의 안식, 의사의 금주, 금연의 진로를 넘는 진정한 위로는 성령의 하나님임을 확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을 유일한 기준(Th)으로 삼지 않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의 기준(W)으로 삼는 현대의 세대. 신앙고백 속에 나타나는, 성경전체에서 말하는 주제는 약화되었다.

죽, 신앙의 대상, 방법, 자제, 시간에 대한 체계가 약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행6:16, 창23:15, 3:10, 출3:14)



제1문의 독특성
제1문 :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 :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하나님과 화복)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화복의 방법)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화복+a+은택을 보존)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

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모든 악을 선으로 바꿈)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충만한 깨달음과 확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가. 제1문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또한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위로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자리를 제시해 주고(창 2:8.15) 창2:4-19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고 '에덴동산에 두사' 마치 신혼살림집처럼 인간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안식처, 에덴동산을 주었다. 안식의 환경 가운데 사람을 두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또한 사람의 가치는 임무와 가치는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이다. 있는 정신과 동일한 정신을 표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의 궁극적인 비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진정한 위로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복 되며 또한 그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다. - 선이 악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하며 가장 큰 악인 죄와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위로가 주어지지 때문에 最高善이어야 한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창 2:15) 따라서 진정한 위로는 교회의 교의 밖에 없다. -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어떻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살펴서 변하지 않는 옛적 길 선한 길을 찾으라는 것이다(렘6:16). 기초가 없고 뼈대가 없는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과 같이 무너지기 쉽다. 이 요리문답은 어두운 밤길에 불빛과 같은 신앙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다. 임시위로는 사람숫자만큼이나 많은 생각이 제기되었다. (감각적 쾌락, 인간 정서의 적절한 통제와 중용에서나 덕의 습관, 관념, 덕의 실천, 인문주의(르네상스), 명예나 부귀나 쾌락 - 일시적인 위로, 죽음에 이르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다.) 또한 덕과 명예는 불멸하는 것이요 장례식 이후에도 남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 풍조가 일으키는 변화에 익숙하므로 변화를 좋아하고 새 것을 추구한다. (오늘 누리지 못하면 속는 것이다.)

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쌓아둔 소망, 인간의 본질적인 자리를 제시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다. 왜냐하면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충분하니 만족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8:35) 2)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 교회 술과 담배 문제 1

"금주 문답," <신학월보>, 1903년 4월

초기 감리교회의 강력한 금주 정책을 보여주는 문답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초대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 한 열쇠가 되기에 조금 길게 쓴다.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 사는 김주련은 유불선 삼도와 각종 종교서적을 읽으며 30년 간 천주교 신자로 있다가 이 무렵 개신교로 개종했다. 유교나 천주교회는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애주가였던 그가 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는 금주 문제였다. 그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강사인 평양감리교회 목사 이은승과 문답을 주고받는다. 그때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한다.] 곧 1903년 4월호에 실린 금주문답은 그 앞에 나오는 함종읍감리교회의 여러 기사 중의 하나이므로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사 1) 1902년 8월 속장 이교담을 비롯 교인 100여 명이 자급으로 아홉 간의 예배당을 새로 지은 이야기, (기사 2) 이때 소실(침)이었다가 이를 청산하고 혼자 살며 교회 나온 박씨 부인 이야기, (기사 3) 귀신이 나가고 영육 간에 건강을 되찾은 장문식 이야기, (기사 4) 읍내에 세운 여학교 이야기, 그리고 입교회의 사경회 이야기(이은승 목사 인도)에 이어서 나오는 기사, (기사 5) 금주 문답, 그리고 (기사 6) 술 문답 맹서문, (기사 7) 함종 세 곳에 교회 일어남 등이다.

수 있다. (따라서 115년 후인 현재 상황에 이를 바로 적용하거나 현재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중국 개신교에서는 강력한 금연(禁煙)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폐가망신과 망국의 원인인 아편연(阿片煙)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성경에는 아편연을 금하는 구절이 없지만, 아편 무역을 반대한 선교사의 정책과 아편연으로 인한 중국 사회의 피폐상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교회는 금연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금주 정책이 강했는데, 이는 담배보다 술이 가정을 파괴하고(가정 폭력, 노름, 여성차별) 나라를 망치

三十五百一
○금주문답
김주련 : 목사님, 저는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불선 삼도와 각종 종교서적을 읽으며 30년 간 천주교 신자로 있다가 이 무렵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유교나 천주교회는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애주가였던 제가 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는 금주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강사인 평양감리교회 목사 이은승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은승 : 김주련 씨, 술은 육체의 즐거움이지만, 영혼의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술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김주련 : 목사님, 술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불선 삼도와 각종 종교서적을 읽으며 30년 간 천주교 신자로 있다가 이 무렵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유교나 천주교회는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애주가였던 제가 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는 금주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강사인 평양감리교회 목사 이은승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은승 : 김주련 씨, 술은 육체의 즐거움이지만, 영혼의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술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三十五百一

二十五百一
○금주문답
김주련 : 목사님, 저는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불선 삼도와 각종 종교서적을 읽으며 30년 간 천주교 신자로 있다가 이 무렵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유교나 천주교회는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애주가였던 제가 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는 금주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강사인 평양감리교회 목사 이은승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은승 : 김주련 씨, 술은 육체의 즐거움이지만, 영혼의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술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김주련 : 목사님, 술을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평남 강서군 함종읍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불선 삼도와 각종 종교서적을 읽으며 30년 간 천주교 신자로 있다가 이 무렵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유교나 천주교회는 금주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애주가였던 제가 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는 금주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경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강사인 평양감리교회 목사 이은승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이은승 : 김주련 씨, 술은 육체의 즐거움이지만, 영혼의 해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술을 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二十五百一

나 지금이나 애주가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성경적이지만, 교회의 답변은 포괄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교회론적이며 신학적이다. 문답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이 목사의 사회학적/교회론적 답변에는 역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곧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따라서 금주문답은 새로운 교회,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사회와 구별되는 신교육과 신윤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보기에 옳은,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한 방편이자 구별되는 표시로서 남자의 경우에 금주가 요구되었음을 알

는 사회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는 19세기 말 미국의 절제운동, 특히 여성들의 금주운동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1920년대 문화민족운동의 한 갈래로 강력한 금주금연운동이 전개되었다.

육성득교수

김치선 특집

대신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스승 고봉 김치선 박사



고봉 김치선목사
대신교단 설립자

1. 서론

고봉 김치선 박사는 '한국의 에레미야'로 불릴 만큼 우리 대신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이요, 신학자요, 부흥운동가였다. 본 소고는 대신교단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김치선 박사의 생애와 신학과 사상 그리고 사역들을 고찰해 보면서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혼란과 분열 그리고 다툼으로 어긋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대신교단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신인이 먼저 알아야 하고 한국 교회가 모두 알아야 할 우리의 스승이신 고봉 김치선 박사에게 대하여 알아보자.

2. 고봉 김치선 박사의 생애

2.1. 출생과 성장

고봉 김치선 박사는 1899년 함경남도 흥남읍 서호리 바닷가의 작은 어촌에서 어촌 부호의 아들인 부친 김영준과 모친 최현숙 사이에서 3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비교적 일찍 기독교가 전해진 곳이다. 김치선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였고 일찍부터 서당에 다녔는데 서당 선생은 김응보 영수로 기독교가 처음 서호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신앙가였다.

김치선이 14세 때 그의 조부의 어선 40척이 폭풍에 휩쓸려 김씨 가문이 파산하게 되었고 부친인 김영준은 할 수 없이 살길을 찾아서 가족을 거느리고 머나먼 장진 땅에 화전민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화전민으로 떠나는 치선을 붙잡고 못 떠나게 한 사람이 영수인 김응보이다. 김응보는 영특한 치선을 화전민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는 치선을 함흥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영재영(Luther Lisger Young)목사에게 소개했고 이때 김치선은 그의 믿음의 아버지요, 후견인이며, 평생의 은인인 영재영 목사를 만나게 된다. 그 후 치선은 영목사의 가정의 제반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여 열심히 봉사하였다. 그와 동시에 치선은 미션 스쿨이었던 영생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생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19년 함흥지역의 비밀 학생 대표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던 치선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욱이 그는 이수갑생활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 발견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출옥 후에 목사가 될 것을 결심한다. 1922년 23세의 나이로 영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치선은 서울로 유학 와서 연희 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해 영문학을 공부한다.

2.2. 신학교시절

1926년 28세의 나이로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치선은 목사가 되기 위해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1년 후 그는 영재영 목사의 뜻에 따라 평양신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 중앙신학교(현 개혁신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했다. 고베중앙신학교의 성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표명하고 있는 역사적 개혁파 신학

메이첸(Machen)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좌경화된 신파가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메이첸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교수퇴진과 함께 8명의 교수들이 필라델피아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세우게 되었다. 영재영 목사는 김치선의 유학 대상학교로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혹자는 김치선을 근본주의자라 한다. 그가 완전 축자영감설,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지옥의 실재성, 사탄과 귀신의 실재성 등 전통적 기본 교리를 역설하는 것 외에, 사회복음의 부당성, 각종 자유주의자들로 부터의 분리를 주장, 자유주의자들의 과학과 신학의 통합시킴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믿음, 천년왕국설에 기초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유주의적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그를 근본주의 신학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치선의 신학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근본주의적 요소는 있어도 근본주의 신학은 아니다. 반면 김치선을 세대주의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김치선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1936년대의 달라스신학교의 신학이 근본주의가 아니고 무디성서대학(Moody Bible Institute)과 Biola(Los Angeles Bible Institute)와 필라델피아성서대학(Philadelphia Bible Institute) 등과 함께 세대주의 입장에 선 신학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 사상은 오늘처럼 한마디로 규명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이 그러했듯이 포괄적 의미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근본주의를 개혁파 신학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지만 근본주의는 개혁파 신학은 아니다. 개혁파신학에 근본주의적 요소가 있을 뿐이다.

김치선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모세 오경에 관한 연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순직은 김치선에 대해 "근본주의 정신을 표방하여 자유주의와 대결했다."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치선이 쓴 논문의 참고문헌을 대부분 개혁

주의성향의 문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를 세대주의자나 근본주의자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김치선의 신학과 신앙에 결정적 계기를 형성하게 한 영재영 선교사, 평양신학교, 일본 고베중앙신학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도 역시 근본주의와 거리가 멀다. 미국의 그레삼 메이첸(J. Gresham Machen)과 정통 프린스턴 동료들은 "근본주의"라는 칭호를 싫어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메이첸(Machen)이나 벤틸(Van Til)이 근본주의자로 보이지만 개혁파는 근본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신학체계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메이첸이나 벤틸도 자신이 근본주의자는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치선은 개신교전래 70주년을 맞이하여 1955년에 쓴 「신학과 신조」라는 글에서 "신학은 신조를 무시할 수 없고 신조는 신학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둘이 완전히 서 있을 때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또한 신학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치선은 당시의 신학적 혼란의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무엇보다도 이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신학과 신조의 바른 관계 모색 속에 신학이 바로 서야 하며, 또한 이 신학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바른 신조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의환 박사는 "칼빈주의자는 근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근본주의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증경 총회장 김재규 목사는 「김치선 목사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다음호 계속

목 차

1. 서론
2. 고봉 김치선 박사의 생애
 - 가. 출생과 성장
 - 나. 신학교시절
3. 김치선의 신학과 사상
 - 가. 개혁파신학
 - 나. 민족구원의 열정
4. 김치선목사의 사역
 - 가. 기도운동
 - 나. 회개운동
 - 다. 구령운동
5. 결론

첫째, 기도와 구령 운동 회복으로 예수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기체적 신학교육을 통한 복음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현실에 맞는 사역 기능(훈련)과 지원을 통한 땅굴 선교 사명실현이다.

견지하며 전도에 대한 실천과 관계있는 신학을 연구하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국적을 초월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김치선은 고베중앙신학교를 통하여 역사적 개혁파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

1930년 고베중앙신학교를 졸업한 김치선은 32세에 목사안수를 받고 영재영 목사의 권유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마저 성서고등비평 이론을 도입하는 등 소위 좌경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신학적 입장이 다른 두 파가 프린스턴신학교 안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교를 선택했다. 김치선은 1931년 학교 설립 3년째로 아직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정통신학의 계승과 전승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세운 웨스트민스터신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김치선은 35세 되던 1933년 5월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1934년 9월에 달라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하여 1936년에 모세오경에 대한 연구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3. 김치선의 신학과 사상

3.1. 개혁파신학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1-10
찬송 542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진정함 회복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면(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나의 병들고 연약한 모습, 옛사람의 쓴 뿌리가 뽑혀 나가며 세밀하고 구체적인 회복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험악하고 두려움의 땅인 가나안 조차 쟁과 꿀을 내어놓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험악한 세상조차 우리에게 쟁과 꿀을 내어 놓게됩니다.

약해야 주어지는 소망

로마서 5:1-4
찬송 508장

본문은 하나님과 살기 시작한 사람, 예수 생명이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당연한 마음 자세며, 이 마음을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복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복"에 집중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선명하게 집중해야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마음이 있으며, 박해를 각오하고 전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선명하게 집중할 때 지혜와 능력과 천국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약해야 주어지는 소망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주는 결과 때문입니다. 환란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했습니다. 소망이란 오늘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의 시작이 환란을 통해 시작됩니다. 환란이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더이상 환란이 되지 않고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을 이룰 힘이 없을 때 환란이 됩니다. 이러한 환란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데 인내란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강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능력이 없고 약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러한 인내의 과정을 지난 연단의 단계로 접어 듭니다. 연단이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는 것이 바로 불순물입니다. 이처럼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삶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에 대해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인내의 과정을 지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으로 갑니다. 또한 연단은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약함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주인공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섬김의 언어

고린도후서 3:2
찬송 361장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가치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겠지요.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먹이를 주면, 인성은 그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먹이를 주면, 우리네 삶의 터전엔 아름답고 복스러운 열매가 소담스럽게 열리겠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그토록 간절히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단 한 번 밖에 살수 없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날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기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지만,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면 놀랍고도 귀중한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정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로 축복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먼저 잡아주는 향기로운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천 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의 태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까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김이 무엇인가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거구나" 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구나)란 말과 (~겠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대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또한 가장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언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골 4:6)



정규호 목사
신광교회



이상호 목사
떡갈교회



서민용 목사
평내침례교회

이인수목사 칼럼



이인수 목사

6.25참전,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전)은누리수련원장

“역사속에서 피고졌던
술한 인물들이 행복과 불행의
거울(明鏡)이 바로 역사다
그래서 역사에다가
거울감(鑑)자를 쓴다”

얼굴에 때가 끼면 씻어야한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다. 너와 나의 삶에 사회 시스템에 국가의 방향에 때가 끼면 거울을 봐야한다. 그 거울이 바로 역사다.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맑은물과 조용한 물이란 말은 청명(淸明)하며 움직이지 않는 심경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뜻은 명경에 대하여 신도가 라는 사람이 스승인 백훈무인(伯昏無人)의 어진 덕을 칭송하면서 표현하기를 거울에 흐림이 없으면 때가 묻지 않으나 때가 묻으면 흐려진다. 이와 같이 사람도 오랫동안 어진자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밝아져서 그

릇된것을 아니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명경(明鏡)이 현자의 맑고 깨끗함에 비유하였다. 장자는 명경을 응재 왕편(應帝王篇)에서 지극히 덕을 가진 성인의 마음을 쓰는법을 저 맑은 거울에다 비유할수 있으리라. 맑은 거울은 물체의 오고감에 비쳐 나 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미인이 오면 미인을 비추고 추녀가 오면 추녀를 비추며 어떤것에도 한결같이 맞이하주되 그렇다고 그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얼굴에 때가 끼면 씻어야 한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다. 너와 나의 삶에 사회 시스템에 국가의 방향에 때가 끼면 거울을 봐야한다. 그러므로 거울이 바로 역사다. 역사속에서 피고졌던 술한 인물의 삶에 행복과 불행의 그 거울이 바로 역사다. 사람들은 역사학을 흘러간것 과거에 대한 학문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역사학은 앞으로 다가올것, 미래에 관한 학문이다.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과거는 선택할 수가 없다. 이미 지나갔으니,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선택마다 주저하고 갈등한다. 이걸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저걸 택하면 또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으니,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과가 보인다. 그래서 미래를 바꿀수없다. 역사를 보면 왜, 결과가 보이나 역사속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선택 그에 따른 결과까지 들여져있다.그래서

거울(明鏡)이 바로 역사다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국가에게도 얼마나 좋은 참고서인가, 그래서 역사에다 거울감(鑑)자를 쓴다. 동국통감-단군조선(東國通鑑-檀君朝鮮)부터 고려시대까지 다른 조선전기(朝鮮傳記)의 역사서와 자치통감-중국 북송(資治通鑑-中國北宋)의 역사서를 만들때도 다 거울감(鑑)자를 썼다. 이처럼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라는 것이다. 그게 역사다. 역사속에는 술한 거울이 있다.그런데도 현실속 정치인이나 대통령들은 과오를 범한다. 그건 왜 그런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잡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역사속에서 엮어진 수레는 많다. 엮어진 길위에 또 엮어지고 그 위에 또 엮어지는거다. 그것을 전철(前轍)이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다. 앞서간 수레가 엮어지는걸 뻥히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 그럼 역사속에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했던 인물은 조선시대의 정조라 하겠다. 개인의 삶도 하나의 역사다. 나라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다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고 집안에도 역사가 있다. 나라의 역사가 어긋날수 있듯이 개인의 역사가 어긋날수있다. 그래서, 공자는 성인이란 실수를 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유학(儒學)은 인간의 학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런데 실수가 되풀이 되면 습관이 된다. 그럼, 개인의 역사가 빼놓이지 시작한다. 제마무리 덕성이 높은 사람이

라해도 경우에 따라 나쁜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수가 있는것이다. 다만, 이성이 그 나쁜 생각을 실행치 못하게 할뿐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이성은 어리석은 생각, 그것은 교양과 좋은 습관에서 생긴다. 나쁜 경향이 나쁜 사상을 낳고 좋은 경향이 좋은 사상을 낳는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 어느 교수들이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온 세상이 모두 탁하다 라는 뜻의 거세개탁(擧世皆濁)을 뿔았다(뿔들거, 세상에, 다개, 물흐릴탁) 온세상이 모두 탁해 지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빠르지 않아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말은 어부사(漁父辭)에 실린 고사이다. 충신, 굴원(屈原)이 간신의 모함으로 벼슬에서 쫓겨나와 강가를 거닐때 초체한 모습으로 시를 읊고 있는데 고기잡이 영강이 배를 저어 지나다가 그가 굴원인것을 알고 여쭈하여 이 꼴이 되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까닭을 물었다. 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세상이 흐려있는데 나만이 홀로 맑고 물사람이 다 취해있는데 나만이 홀로 깨어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거세개탁 아독법 중언개탁 아독성(擧世皆濁, 我獨法, 衆人皆濁, 我獨醒)라 했다. 어부는 굴원의 그런 처신에 대해 오히려 꾸중을 했다. 온 세상이 다 흐리면 같이 따라 흐리고 세상이 취하면 같이

따라 취하는것이 성인이 세상을 사는 길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행동으로 이꼴을 당하냐고 꾸중을 했다. 그러자, 굴원은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고, 새로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던다’ 新沐者 必彈冠 新浴者 必振衣(신목자 필탄관 신욕자 필진)면서, 차라리 강에 빠져 물고기의 배속에 장사를 지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깨끗한 몸으로 세상의 먼지를 쓸수있느냐고 했다. 어부는 노래를 불러 화답했다. ‘창랑의 물이 맑거든 갓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내 발을 씻으리라’ 세상이 맑으면 맑게 맞춰살고 세상이 흐리면 흐리게 살라는 말이였다. 청탁자적(淸濁自適)의 생활을 권한 것이다. 창랑지수 청해가이 탁오영, 창랑지수 충신, 굴원(屈原)이 간신의 모함으로 벼슬에서 쫓겨나와 강가를 거닐때 초체한 모습으로 시를 읊고 있는데 고기잡이 영강이 배를 저어 지나다가 그가 굴원인것을 알고 여쭈하여 이 꼴이 되었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까닭을 물었다. 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세상이 흐려있는데 나만이 홀로 맑고 물사람이 다 취해있는데 나만이 홀로 깨어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다. 거세개탁 아독법 중언개탁 아독성(擧世皆濁, 我獨法, 衆人皆濁, 我獨醒)라 했다. 어부는 굴원의 그런 처신에 대해 오히려 꾸중을 했다. 온 세상이 다 흐리면 같이 따라 흐리고 세상이 취하면 같이

현실을 직시해볼때 진실한자, 정직한자, 선한자가 안보이고 없는 듯하여 저절로 한숨이 쉬어지고 탄식소리가 곳곳에 들려지고 있음을 알수있다.온통 세상이 부조리로 판치고 위선과 거짓 악으로 꽂차 있는듯 보여 가슴을 질때가 있다.옛날에는 무식자와 가난한 자들이 삶에 지친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적응이 안되고 반발심이 솟구쳐져서 악을 저질르고 범죄의 온상을 만들었는데 이 시대는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문화 혜택을 고단위로 받고 최고 지성인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선도적인 삶을 살아야하며 사회와 국가에 참된 공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왜 그런지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고 단위로 범죄하고 사회 부패를 일으키니 어찌 탄식이 안나오겠는가, 옥영정자 단기표(欲影正者 端其表)라 했다. 즉, 그림자를 반듯하게 만들려면 본체가 먼저 똑바로 서야한다 라는 말이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고전:5:8)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정신좀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이인수 목사

사설

대신교단이 해야 할 일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한다면 목회자라면 피식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인 것을 알면 무엇하나! 살아온 대로 살고 하던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 별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그 할 일이란 네트워크(network)가 가장 시급하고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회, 교회와 교회, 세상과 교회, 목사와 목사, 기관과 기관, 목사와 성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모두가 네트워크 되는 길이 진정한 교회회복이다. 네트워크란? 연결, 소통, 하나됨, 일체, 연합을 의미한다. 교회는 생태계(ecosystem)와 순환계(circulatory system)로 되어 있다. 교회생태계란? 교회는 생명체이며 유기체로서 주님과 의존적 상호관계를 말하며, 순환계란 몸 전체에 수송하고 전달하고 공급하는 통로와 작용을 한다. 네트워크 교회는 생태계와 순환계가 살아 움직이고 네트워크 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 바치지 않는가? 왜 종교개혁에서 교회개혁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한국교회를 말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

내 주변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처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갈대만도 못한 자이지만 살고 싶은 몸부림이고 먼저 부서는 자를 찾으시는 그분 앞에 있기 위한 실존의 각오를 해본다. 목사로서 우리는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정신, 삶, 신앙은 물론 인생관, 목회관, 교회관에서 무지하고 편협하고 교만하며 세속화 되어버린 모습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방향하지 말라. 변질되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500년 전의 종교개혁정신을 위한 작은 예의이고, 2000년 전의 사도들에 대한 겸손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고 부활하시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대한 최소한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 성도(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 개인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교조화, 무책임으로 교회다운 교회보다 사람과 종교성 요구에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아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이며 진실하게 교회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마16:18)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자신의 교회에 매몰되어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통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삶으로 살아 내며 생명을 모두가 바쳤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 왜 그런 교회

를 포기하는가? 이유는 너무 많다. 아직까지 믿음과 확신이 약해서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러한 답변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찾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교회의 황금시대는 없다. 교회는 회생만이 있다(행20:28). 이것은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너무 고칠 수 없이 치명적이다. 개혁신앙, 개혁목회, 개혁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한다.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도전하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미래에도 주도적인 교회로 책임과 영향력을 주게 될까? 첫째, 작든 크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헌신이 바쳐진 교회이다. 둘째, 서로 교회세움 네트워크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회이다. 셋째, 교회개혁을 위하여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다시 세우는 교회이다. 넷째, 미래향하여 지속적 교회의 꿈과 희망을 뺏속까지 심어주는 교회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독권, 소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소명의 교회이다. 진통은 해산을 위한 축복이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은혜이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플랜팅(new church planting)을 부탁한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보내주셨기에 지금도 교회는 초월적이며 충만하며 승리하게 된다.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 함께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깊이 읽고 생각하

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절박한 시기임에도 하나 되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교회 플랜팅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미래 교회는 불가능하다. The Model Church의 목적은 이미 세계의 중심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central church 들어가는 교회이다. 모델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교회 플랜팅church planting은 교회 모델 플랜팅church model planting이다. 목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 받은 사명의 사람이다. 교회 세우는 것 아니면 그 무엇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를 묻기 전에 교회를 물을 것이다(고전3:10-15). 우리 대신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슴에 새롭게 새기고 고봉 김치신 목사님이 남겨주신 귀한 신앙의 목표였던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로 새롭게 개혁주의 교단을 든든히 세우는 것도 이 시대에 교단이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지난 5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서 당당하게 전진하자.

하루 시사상식



인구절벽

“인구절벽”이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경제예측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자신의 저서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사용한 용어로 청장년층의 인구 그래프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지출이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부터는 한국 경제에도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예상했다.

하루 시사상식
인구절벽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경제예측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자신의 저서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에서 사용한 용어로 청장년층의 인구 그래프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최효식목사
수원염광교회 담임

Suwonyeomgwang Church

수원염광교회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90 | T 031-233-7044



유만석목사
수원명성교회 담임



가정같은 교회 교회같은 가정
하나님과 사람앞에 명성얻는 교회, 수원명성교회입니다.

Suwonmyeongseong Church

수원명성교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92

| 홈 페이지 www.smspc.org | 연락처 031-235-5575 대표번호